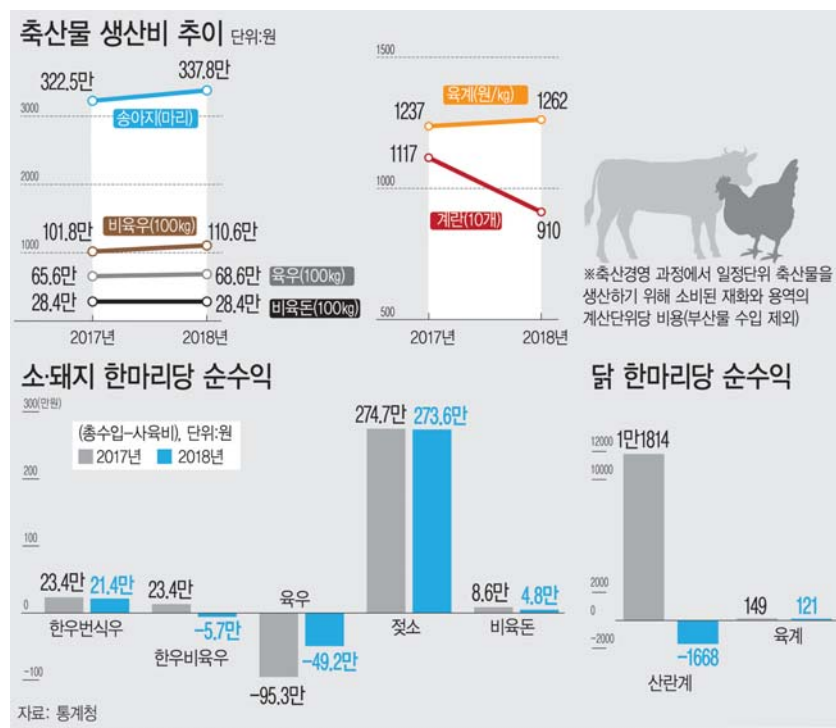


# '계란값 하락'으로 산란계 수익 급락



## 통계청 '2018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발표 마리당 1668원 손해... "포화상태 공급 넘쳐"

자본비에 대한 이자비용, 토지 이자 비용 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다. 총수익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계산해도 마리당 413원의 손해를 봤다. 2017년 마리당 소득은 1만302원에 달했다.

농업진흥청과 관계자는 "2017년 AI가 오고 난 후 계란 가격이 올라가면서 산란계 사육 농가에서 사육 마릿수를 늘려왔다"며 "지난해 같은 경우 포화 상태가 돼서 계란을 팔 때 마당 손해를 보면서 파는 지경이 될 정도로 공급량이 넘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란 실용계(병이리) 산지가격은 1마리당 884원으로 2017년(2080원)보다 57.5% 감소했다. 지난해 계란 도매가격도 1113원으로 전년(1794원)보다 38% 떨어졌다.

지난해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전년(1117원)보다 18.8% 감소한 910원이었다. 2017년보다 가축비(-45.2%), 사료비(-10.9%)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젖소의 마리당 순수익도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젖소 마리당 순수익은 전년보다 1만6000원 감소한 273만6000원이었다. 리터(1)당 우유 생산비는 노동비·가축상각비 상승으로 전년보다 8월 증가한 775원이었다. 전년보다 1.1% 상승한 가격이다.

비육돈 육계, 한우(번식우·비육우) 모두 수익성이 악화됐다. 비육돈과 육계는 축산물 판매가격 하락으로 한우는 노동비·가축비 등 사육비가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쳤다.

한우번식우와 한우비육우의 마리당 순수익은 각각 전년보다 2만원, 18만9000원 하락한 21만4000원, -5만7000원이었다. 비육돈의 마리당 순수익은 폐지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7000원 감소한 4만1800원이었다. 육계는 전년보다 28원 감소한 121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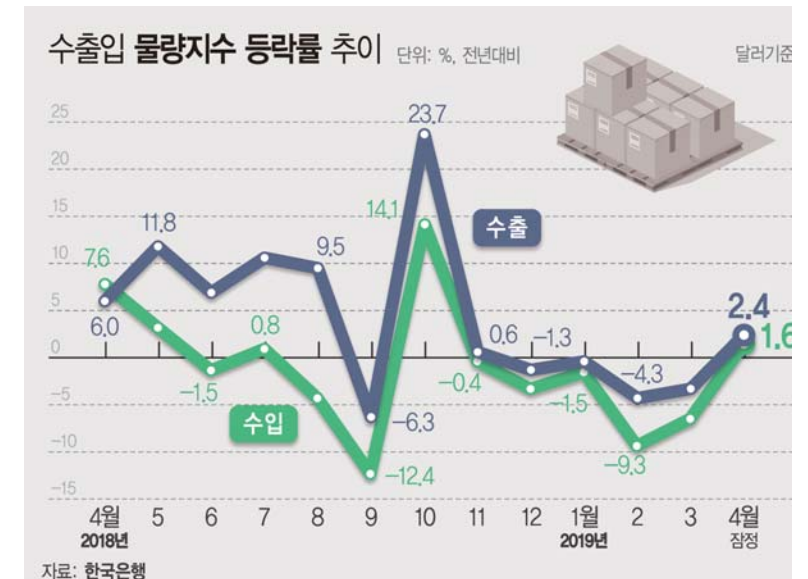
육우 한 마리를 키우면 49만2000원의 손해를 봤다. 전년(95만3000원)보다 손해 폭은 줄어들었다.

계란가격의 하락으로 지난해 산란계 마리당 수익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대량 살처분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하자 산란계 농가에서 사육 마릿수를 늘리면서 공급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축산물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산란계는 마리당 1668원의 손해를 봤다. AI로 인해 2017년 1만1814만 원까지 치솟던 순수익이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이다.

순수익에는 자기노동 투입비용,



## 수출물량 늘어도 금액 하락세 교역조건지수 17개월째 악화

지난달 수출물량이 늘어나 5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수출금액은 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등의 수출 물량이 늘어난 반면 단가는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수출가격 하락으로 수출교역조건지수는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 물량지수는 113.83(2015=100)으로 전년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12월(-1.3%)부터 17달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

수입물량은 전년동월대비 1.6% 상승하며 지난해 11월(-0.4%) 이후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수입물량에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12.6%), 제1차금속제품(11.1%)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 기계 및 장비는 17.5% 빠져 하락세를 지속했다.

수입금액도 1.6% 올랐다. 지난해 12월(0.4%) 이후 6달 만에 반등했다. 기계 및 장비(-18.7%),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이 하락했음에도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8.2%) 등이 오름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 수출물량, 5개월 만에 반등...스마트폰, 반도체 등 ↑ 수출금액은 5개월째 내려,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영향

품목별로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수출 물량이 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4.3% 올라 상승 전환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집적회로 수출물량은 31.0% 증가하며 지난 2월부터 5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제1차 금속제품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여파로 3.0% 감소했다.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4.2% 떨어졌다. 지난해 12월(-3.7%)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도체 등을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11.8% 내려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제1차 금속제품(-6.7%), 석탄 및 석유제품(-2.0%) 등도 떨어졌다. 승용차 등 운송장비의 경우 수출금액이 4.3% 올랐고 물량도 5.0% 증가했다. 설비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물량이 늘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4.3% 올라 상승 전환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집적회로 수출물량은 31.0% 증가하며 지난 2월부터 5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제1차 금속제품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철강 수입규제 강화 여파로 3.0% 감소했다.

수출금액은 전년동월대비 4.2% 떨어졌다. 지난해 12월(-3.7%)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도체 등을 비롯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가 11.8% 내려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제1차 금속제품(-6.7%), 석탄 및 석유제품(-2.0%) 등도 떨어졌다. 승용차 등 운송장비의 경우 수출금액이 4.3% 올랐고 물량도 5.0% 증가했다. 설비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 한국시장 주목하는 LVMH "트렌드 알잖아" 귀한 한국인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그리고 한국어...

루이비통모에헤시(LVMH)의 온라인 쇼핑몰 24S(트렌트포스)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시아권 언어로는 한국어가 유일하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LVMH그룹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시장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한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활발해 한국 시장에서 대박이 나면 국경을 초월한 온라인 공간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S는 한국어를 도입하면서 원화 결제 시스템도 함께 시작했다. 결제가 완료되면 3일 만에 한국에 물건이 배송된다.

LVMH가 한국을 아시아 진출 거점으로 삼은 이유는 한국 명품 시장의 성장성을 봤기 때문이다.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 이자벨 마랑의 옷을 처음 판매했을 때

한국 소비자들 덕에 완판된 것이 적잖은 충격을 줬다.

팝업스토어 등을 서울에서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들의 대표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선보인 핸드백 팝업 스토어 '트위스트 백'도 전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 열렸다.

루이비통이 1991년 서울에 국내 첫 매장을 연 이래 백화점이나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팝업스토어를 마련한 것도 처음이다.

펜디(FENDI)는 이달 초 새로운 컬렉션인 '로마 아모르(ROMA AMOR)'를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였다. 네온(형광색) 컬러와 스트리트룩의 느낌을 더한 이번 컬렉션은 명품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했다.

펜디가 새 컬렉션을 한국에서 첫 론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에서는 성장한 한국 명품 시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 커지는 금리인하론...31일 韓銀 금통위 관심 한은 '만장일치 동결' 우세 속 인하 소수의견 가능성도

최근 금리인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연 1.75% 수준에서 그대로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지금까지 열린 세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해왔다. 경기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활황 등 금융불균형 문제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하 가능성에도 명확히 선을 그어왔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일 피지 난지에서 열린 '한·중·일,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요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앞으로 성장세가 회복되고 물가 상승률도 1%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장 한은의 금리동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 상승을 비롯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기와 물가 오름세 둔화도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는 분위기다. 당장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렵겠지만 경기 둔화세가 더 뚜렷해지면 한은도 금리인하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대내외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은 하나같이 어두워졌다. OECD, KDI, 한국금융연구원 등 최근 들어서만 3곳의 연구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4%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민약 올 2분기 GDP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등 경기 지표 부진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인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어느정도 제동이 걸려 한은이 내세워온 금융안정 명분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